<h1>나 혼자만 레벨업-88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dab5cb795df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88화</p>  
<p>배 팀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"헛... 사고라도 생긴 겁니까? 길드에 증원 요청이라도 할까요?"</p>  
<p>"아뇨, 개인적인 일입니다. 그 사람한테 개인적인 용무가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"</p>  
<p>"아... 알겠습니다."</p>  
<p>차해인은 게이트 쪽으로 몸을 틀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옆구리가 허전했다.</p>  
<p>'아... 내 무기.'</p>  
<p>허리 주변을 더듬거리던 그녀는 검을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렸다.</p>  
<p>비번인 오늘 던전에 들어가게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?</p>  
<p>차해인의 미간이 곱게 구겨졌다.</p>  
<p>'리더를 맡고 있는 기훈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, 팀원들도 모두 훌륭한 헌터들이지만.'</p>  
<p>그래도 무기 없이 던전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.</p>  
<p>잠깐의 고민 끝에 배 팀장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"하실 말씀이라도...?"</p>  
<p>배 팀장은 눈을 말똥말똥 떴다.</p>  
<p>"팀장님, 혹시 무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?"</p>  
<p>"예?"</p>  
<p>망설이던 배 팀장이 근처를 지나가던 헌터에게 지시했다.</p>  
<p>"이봐, 석 씨. 가서 장비 하나 갖고 와 줘."</p>  
<p>"예."</p>  
<p>석 씨가 재빠르게 가져온 장비는 채굴팀이 쓰는 곡괭이였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차해인의 얼굴이 굳어졌다.</p>  
<p>"저기... 다른 건 없나요?"</p>  
<p>"다른 거라면...?"</p>  
<p>"검이라던가, 창이라던가."</p>  
<p>"저희한테서 그런 걸 찾으시면..."</p>  
<p>"..."</p>  
<p>차해인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"알겠습니다."</p>  
<p>배 팀장이 건네주는 곡괭이를 정중히 사양한 그녀가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.</p>  
<p>배 팀장은 멀어지는 차해인의 뒷모습을 향해 걱정스럽게 물었다.</p>  
<p>"차 헌터님, 빈손으로 괜찮으시겠어요?"</p>  
<p>우뚝.</p>  
<p>그 자리에 멈춰 선 차해인이 잠시 고민하더니, 이내 빠른 걸음으로 되돌아와 배 팀장이 들고 있던 곡괭이를 받아 들었다.</p>  
<p>배 팀장은 껄껄 웃었다.</p>  
<p>"잘 생각하셨습니다. 아무래도 던전에서 맨손은 좀 위험하죠."</p>  
<p>"그럼..."</p>  
<p>돌아서는 그녀의 귓바퀴가 붉게 물들어 있었던 것을 배 팀장은 발견하지 못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공격대 전원의 얼굴에서 비장감이 맴돌았다.</p>  
<p>모두 다가올 운명을 예감하고 있는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와중에, 여힐러가 다가와 진우의 짐을 뒤적거렸다.</p>  
<p>진우가 목만 옆으로 돌리고는 물었다.</p>  
<p>"뭐해요?"</p>  
<p>"잠시만요."</p>  
<p>그녀 손에 딸려 나온 것은 아기자기한 여성용 가방이었다.</p>  
<p>"예전부터 가방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상하게 불안해서요."</p>  
<p>묻지도 않았는데 친절한 설명까지.</p>  
<p>가방 안에서 수첩과 펜을 꺼낸 여힐러가 수첩에 뭔가를 꼬물꼬물 적기 시작했다.</p>  
<p>앞을 안 보고 걷는 바람에 몇 번이나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콩콩 부딪쳤다.</p>  
<p>슥.</p>  
<p>잠시 뒤 그녀가 수첩을 닫았다.</p>  
<p>글을 적는 동안 어깨에 둘러메고 있던 자기 가방은 진우의 짐 가방 안에 도로 집어넣었는데, 수첩은 여전히 손에 남아 있었다.</p>  
<p>뭘 어쩌려는 건가 유심히 보고 있던 진우에게 여힐러가 수첩을 내밀었다.</p>  
<p>"...?"</p>  
<p>수첩을 받아 든 진우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여힐러가 울먹이며 말했다.</p>  
<p>"가족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 적었거든요. 밖에 나가시면 꼭 전해 주세요."</p>  
<p>여기서 웃어 버리면 상처받겠지.</p>  
<p>진우는 웃음을 꾹 눌러 참으며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다.</p>  
<p>"일단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이걸 배달할 일은 없을 겁니다."</p>  
<p>"괜찮아요."</p>  
<p>여힐러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'하이오크 전사들이 저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는데 무사히 빠져나가긴 힘들겠지.'</p>  
<p>짐꾼 씨는 E급에 불과하니까.</p>  
<p>아직 그녀는 진우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.</p>  
<p>곧 보스방이 드러났다.</p>  
<p>헌터들의 긴장감이 공기를 타고 넘어와 피부로 전해졌다.</p>  
<p>드넓은 공동.</p>  
<p>'...'</p>  
<p>진우는 보스방 안을 훑어보았다.</p>  
<p>어제 거인이 있었던 방보다 더 컸다.</p>  
<p>하지만 어제와 달리 보스방이 크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다.</p>  
<p>안을 가둑 메운 하이오크들 때문이었다.</p>  
<p>공격대를 데리고 왔던 하이오크들의 두 배 넘는 숫자가 거기에 있었다.</p>  
<p>'한 백 마리... 아니, 좀 더 되나?'</p>  
<p>던전 내부에 마수가 하나도 없었던 대신, 전부 보스방에 몰려 있었다.</p>  
<p>줄지어 늘어선 하이오크들을 둘러보는 손기훈의 안색이 창백히 식어갔다.</p>  
<p>'이 정도 숫자의 하이오크들이 게이트를 빠져나간다면...'</p>  
<p>최상급 헌터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작은 시 하나는 박살 낼 수 있는 규모였다.</p>  
<p>등 뒤에 식은땀이 흘렀다.</p>  
<p>'적어도 보스만이라도 해치워야 한다.'</p>  
<p>마른침을 힘겹게 목 안으로 넘기듯, 굳은 각오를 마음속 깊이 꾹꾹 눌러 담았다.</p>  
<p>보스방에 있던 하이오크들이 길을 터 주었다.</p>  
<p>"아 샤크."</p>  
<p>대장 하이오크가 다시 손짓했다.</p>  
<p>안내를 맡았던 하이오크들과 뒤를 따르는 공격대는 보스방 구석에 있는 제단 쪽으로 걸었다.</p>  
<p>"저기!"</p>  
<p>헌터 하나가 제단 위를 가리켰다.</p>  
<p>거기에는 가면과 뼈 목걸이, 뼈 귀고리 등 장신구로 정신을 주렁주렁 치장한 하이오크 주술사가 있었다.</p>  
<p>'저놈이 보스...'</p>  
<p>손기훈의 얼굴이 굳어졌다.</p>  
<p>던전 안을 채운 무시무시한 마력은 대부분 놈에게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.</p>  
<p>그리고 놈의 주변.</p>  
<p>놈을 지키고 있는 예리한 눈빛의 호위들 넷에게서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.</p>  
<p>'좋지 않아.'</p>  
<p>저 호위들을 제치고 주술사를 단번에 처치할 수 있을까?</p>  
<p>헌터들 모두 다들 비슷한 생각을 했다.</p>  
<p>공격대는 주술사 앞에 멈춰 섰다.</p>  
<p>공격대 헌터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둘러싸고 있는 하이오크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.</p>  
<p>"흐흐."</p>  
<p>하지만 주술사는 주변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면 밑으로 드러난 흉측한 아가리를 벌리며 킥킥 웃었다.</p>  
<p>"인간들이여, 환영하노라."</p>  
<p>공격대 헌터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.</p>  
<p>'손 형이 신호하면.'</p>  
<p>'다 같이 뛴다.'</p>  
<p>'무조건 주술사만 노려.'</p>  
<p>공격할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였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별안간 주변의 공기가 싸늘히 얼어붙기 시작했다.</p>  
<p>공격대는 모두 일류 헌터들.</p>  
<p>그들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한기에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원인은 주술사.</p>  
<p>놈이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있었다. 그러자 감추고 있던 놈의 마력이 가감없이 드러났다.</p>  
<p>화악-</p>  
<p>전율스런 마력 파장이 놈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사방으로 뻗어나갔다.</p>  
<p>평범한 인간이 바로 코앞에서 사자나 호랑이와 마주친 것처럼, 헌터들의 몸이 돌처럼 굳어 버렸다.</p>  
<p>"마, 맙소사..."</p>  
<p>"어떻게 이 정도의 마력이...?"</p>  
<p>"이, 이런 놈과 싸우라고?"</p>  
<p>좌절, 한탄, 원망, 후회.</p>  
<p>갖가지 형태의 절망들 앞에서 주술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"내가 두려운가, 인간들이여?"</p>  
<p>아랫입술을 질끈 깨문 손기훈이 어렵게 한 발 앞으로 나섰다.</p>  
<p>그러고는 물었다.</p>  
<p>"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 왔지? 우리를 죽이는 건 전사들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."</p>  
<p>주술사가 씩 웃었다.</p>  
<p>보는 것만으로 소름이 돋는 미소였다.</p>  
<p>"여흥이다."</p>  
<p>"뭐?"</p>  
<p>손기훈은 말문이 콱 막혔다.</p>  
<p>겨우 그런 이유로 자신들을 여기까지 불러 왔단 말인가?</p>  
<p>주술사는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여기서 남은 시간 동안 너희들을 하나씩 죽이며 병사들의 흥을 돋울 것이다!"</p>  
<p>우워어어어어-!</p>  
<p>하이오크 전사들이 흥분에 찬 함성을 내질렀다.</p>  
<p>헌터들은 오크들의 위압감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었다.</p>  
<p>눈물을 보이는 헌터도 있었다.</p>  
<p>"한데..."</p>  
<p>주술사의 말이 끊겼다.</p>  
<p>놈의 시선이 일행의 맨 끝에 있는 진우에게 멈춰졌다.</p>  
<p>"...인간 중에 묘한 것이 섞여있구나."</p>  
<p>순간 손기훈의 눈이 번뜩였다.</p>  
<p>'주술사가 한눈을 파는 지금이 타이밍이다!'</p>  
<p>그의 목에 핏대가 섰다.</p>  
<p>"지금!"</p>  
<p>목청껏 외친 손기훈이 검을 뽑으며 뛰쳐나갔다.</p>  
<p>하지만 뒤가 조용했다.</p>  
<p>'어째서...?'</p>  
<p>달리며 뒤를 돌아보니 동료들은 감히 움직일 생각도 못하고 모두 뻣뻣이 굳어 있었다.</p>  
<p>너무도 압도적인 힘 앞에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해 버린 상태였다.</p>  
<p>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.</p>  
<p>'아...'</p>  
<p>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.</p>  
<p>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노릇.</p>  
<p>시선이 다시 앞을 향했다.</p>  
<p>허를 찔렸는지 주술사는 아직 웃고 있었고, 호위들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.</p>  
<p>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.</p>  
<p>운이어도 좋다.</p>  
<p>요행이어도 좋다.</p>  
<p>제발 이 검이 닿을 수만 있다면...</p>  
<p>탓, 탓, 탓!</p>  
<p>맹렬히 돌진하던 손기훈이 검을 뒤로 젖혔다.</p>  
<p>"으아아아-!"</p>  
<p>그러나 검을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무언가에 부딪혀 튕겨 나갔다.</p>  
<p>쾅!</p>  
<p>실드 마법이었다.</p>  
<p>"컥!"</p>  
<p>반동으로 나가떨어진 손기훈이 바닥을 데굴데굴 굴렀다.</p>  
<p>허나 그것도 잠시.</p>  
<p>"여기 첫 번째 지원자가 나왔구나."</p>  
<p>주술사의 조롱과 함께 손기훈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.</p>  
<p>우우웅-</p>  
<p>역중력 마법.</p>  
<p>"..."</p>  
<p>주술사의 입술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.</p>  
<p>손기훈을 2층 건물 높이까지 들어올린 주술사는 이번엔 다른 주문을 외웠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중력 가속.</p>  
<p>쾅!</p>  
<p>송기훈은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다.</p>  
<p>"커헉!"</p>  
<p>그러나 고통에 몸부림칠 새도 없이 다시 공중으로 떠올랐다.</p>  
<p>"역중력."</p>  
<p>킥킥킥.</p>  
<p>주술사는 물론이고, 하이오크들 모두 긴 어금니를 내보이며 조소를 흘렸다.</p>  
<p>쾅!</p>  
<p>"커헉!"</p>  
<p>우우웅-</p>  
<p>쾅!</p>  
<p>"컥!"</p>  
<p>주술사는 몇 번이고 손기훈을 들어 올렸다 떨어뜨리며 그를 농락했다.</p>  
<p>네 번째 바닥에 부딪혔을 때, 손기훈의 입에서 왈칵 핏물이 쏟아졌다.</p>  
<p>그 모습을 보는 헌터들의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질려 갔다.</p>  
<p>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.</p>  
<p>"기, 기훈 형..."</p>  
<p>모두가 덜덜 떨며 손기훈이 망가지는 장면을 보고만 있었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여힐러는 서 있을 힘도 없는지 그만 주저앉았다.</p>  
<p>기어코.</p>  
<p>주술사는 다섯 번째 손기훈을 공중으로 띄웠다.</p>  
<p>"목숨 한 번 질긴 놈이군."</p>  
<p>"으으..."</p>  
<p>손기훈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.</p>  
<p>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손에 쥔 검만큼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.</p>  
<p>우우웅!</p>  
<p>쿵!</p>  
<p>우우웅!</p>  
<p>쿵!</p>  
<p>우우웅!</p>  
<p>허공과 바닥을 수차례 왔다 갔다하는 사이, 손기훈은 마침내 쥐고 있던 검을 손에서 놓쳤다.</p>  
<p>챙그랑.</p>  
<p>그때.</p>  
<p>바닥으로 낙하하던 손기훈이 휙 하고 사라졌다.</p>  
<p>"응?"</p>  
<p>주술사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전신의 뼈가 조각났을 인간 놈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?</p>  
<p>주술사가 손기훈의 기척을 찾아 눈을 굴렸다.</p>  
<p>'저건...?'</p>  
<p>얼마 떨어지지 않은 구석에서 누워 있는 손기훈을 발견했다.</p>  
<p>그와 동시에 옆에 앉은 사내를 보았다.</p>  
<p>진우였다.</p>  
<p>진우는 손기훈을 바로 눕히고, 주술사를 노려보며 물었다.</p>  
<p>"리더 씨, 하나만 물어볼게요."</p>  
<p>"...?"</p>  
<p>그때까지 손기훈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.</p>  
<p>"내가 여기 있는 마수들을 다 죽여도 되겠습니까?"</p>  
<p>"당신... 무슨 소리를...?"</p>  
<p>인상을 찌푸리던 주술사가 턱짓하자, 주술사의 호위 하나가 곡도를 빙글 돌리며 진우에게 달려왔다.</p>  
<p>놈을 노려보는 진우의 눈빛에 광채가 흘러나왔다.</p>  
<p>진우는 손을 뻗었다.</p>  
<p>'지배자의 손길.'</p>  
<p>그러자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움켜잡힌 것처럼 호위가 공중으로 떠올랐다.</p>  
<p>"크, 크롸?"</p>  
<p>놈이 허공에서 발버둥 쳤다.</p>  
<p>'아니...?'</p>  
<p>주술사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진우는 손끝을 아래로 내렸다.</p>  
<p>쾅!</p>  
<p>호위가 바닥에 처박혔다.</p>  
<p>어찌나 세게 박았는지 바닥에 금이 쫙 갔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술사가 손기훈에게 했던 것처럼 호위를 다시 공중으로 띄웠다.</p>  
<p>쾅!</p>  
<p>쾅!</p>  
<p>쾅!</p>  
<p>호위는 바닥과 손을 오가는 농구공처럼 천장과 바닥을 번갈아 처박으며 굉음을 내다가, 결국 천장에 머리가 처박혔다.</p>  
<p>쾅!</p>  
<p>후두두둑.</p>  
<p>돌가루가 떨어져 내렸다.</p>  
<p>대롱대롱 흔들리는 호위의 목 아래를 보면서, 하이오크들과 헌터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.</p>  
<p>손기훈이 파르르 떨며 물었다.</p>  
<p>"당신... 도대체 정체가...?"</p>  
<p>"다시 묻겠습니다."</p>  
<p>여기는 헌터스의 사냥터다.</p>  
<p>지금 여기서 헌터스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.</p>  
<p>진우는 마지막으로 물었다.</p>  
<p>"여기 있는 마수들... 전부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?"</p>  
<p>왜일까?</p>  
<p>이제 짐꾼의 정체 따윈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그저 분했다.</p>  
<p>장난감처럼 마수 따위에게 농락당한 자신이 분했다.</p>  
<p>손기훈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.</p>  
<p>"부탁... 부탁합니다."</p>  
<p>됐다.</p>  
<p>진우가 일어서자 하이오크들이 다가왔다.</p>  
<p>그 뒤에는 주술사가 있었다.</p>  
<p>주술사가 비웃었다.</p>  
<p>"인간 주제에 제법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."</p>  
<p>그가 손짓하자 하이오크들이 진우를 둥글게 둘러쌌다.</p>  
<p>"그러나 그 재주가 어디까지 통할 성싶으냐?"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다.</p>  
<p>단 한 번도 마수가 좋았었던 적은 없었지만, 이렇게까지 베어 버리고 싶은 놈은 처음이었다.</p>  
<p>"너는 제일 마지막이다."</p>  
<p>즐거움을 알고 있다면 두려움 또한 느낄 수 있겠지.</p>  
<p>진우가 읊조렸다.</p>  
<p>"그림자들..."</p>  
<p>진우의 양손에 두 개의 단검이 스르르 나타났다.</p>  
<p>"나와라."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